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

2017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017. 7.



강 원 도 의 회
교 육 위 원 회

보 고 순 서

I . 연수개요 / 1

II . 연수일정 / 2

III . 주요 연수내용 / 3

IV . 연수 종합의견 / 20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교육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통해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강원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세계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및 주요 문화·역사적 유적지 답사를 통한 다문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마인드 형성으로 의정활동의 역량 제고

I.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7. 6. 25. ~ 7. 3. / 7박 9일
- 연수국가 : 터키
- 연수인원 : 10명 (교육위원 8, 전문위원실 직원 2)
 - 교육위원(8) : 남경문(위원장), 김연동(부위원장), 김성근, 강청룡, 곽영승, 오원일, 이문희, 이종주
 - 교육전문위원실(2) : 우연택, 조남석
- 주요 연수 및 활동내용
 - 터키 교육제도 및 교육환경 조성 현황 파악
 - 터키의 의회정치 실태 및 지방제도·주요 시책사업 등 시찰
 - 글로벌화·전문화시대에 적합한 선진 각종제도 및 역사, 문화시설 견학
 - 교육발전방향 상호 비교연구 및 우수사례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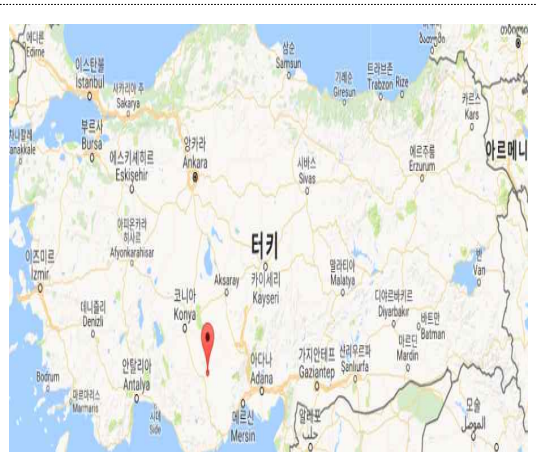
II. 연 수 일 정

일 자	지 역	시 간	연 수 일 정
제1일 6.25. (일)	인 천 이스탄불	11:00 14:00 19:40	▶ 인천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 인천출발(→ 이스탄불) 【 11:45 소요 / 시차 -6】 ▶ 투숙 및 휴식
제2일 6.26. (월)	베이파자르 아야스	전일	▶ 오스만 터키 가옥 및 시장 관광 ▶ 그랜드바자르(전통 재래시장) 방문
제3일 6.27. (화)	악사라이	전일	▶ 이스탄불 출발(→ 악사라이) ▶ isabet okullari aksaray 학교 방문
제4일 6.28. (수)	카파도키아	전일	▶ 악사라이 출발(→ 카파도키아) ▶ Ozel Kardelen Koleji 학교 방문 ▶ 괴뢰메 야외박물관, 도자기 마을 등 견학
제5일 6.29. (목)	안탈리아	전일	▶ 카파도키아 출발(→ 안탈리아) ▶ 안탈리아 시청 · 시의회 방문 ▶ 안탈리아 명소 관광(하드리안의 문 등)
제6일 6.30. (금)	파묵칼레	전일	▶ 안탈리아 출발(→ 파묵칼레) ▶ 문화관광자원 보존 실태 견학(히에라폴리스 유적 등)
제7일 7. 1. (토)	에페소	전일	▶ 파묵칼레 출발(→ 에페소) ▶ 에페소 명소 관광(로마 시대 원형 극장 등) ▶ 에페소 출발(→ 이스탄불)
제8일 7.2. (일)	이스탄불	전일 21:20	▶ 이스탄불 명소 관광(성소피아 성당 등) ▶ 이스탄불 출발(→ 인천)
제9일 7.3. (월)	인천	13:20 17:00	▶ 인천공항 도착 ▶ 춘천 도착 후 해산

Ⅲ. 주요연수내용

1 터키

1. 일반 현황



- ▶ 수도 : 앙카라(Ankara)
- ▶ 인구 : 80,274,604명(2016 기준)
- ▶ 면적 : 783,562km²면(한반도의 약 3.5배)
- ▶ 주요도시 : 이스탄불(Istanbul), 이즈밀(Izmir), 콘야(Konya)
- ▶ 주요민족 : 터키인(Turkish), 쿠르드인(Kurd), 아랍인(Arab)
- ▶ 주요언어 : 터키어(Turkish), 쿠르드어(Kurdish), 아랍어(Arabic)
- ▶ 종교 : 이슬람교(98%), 기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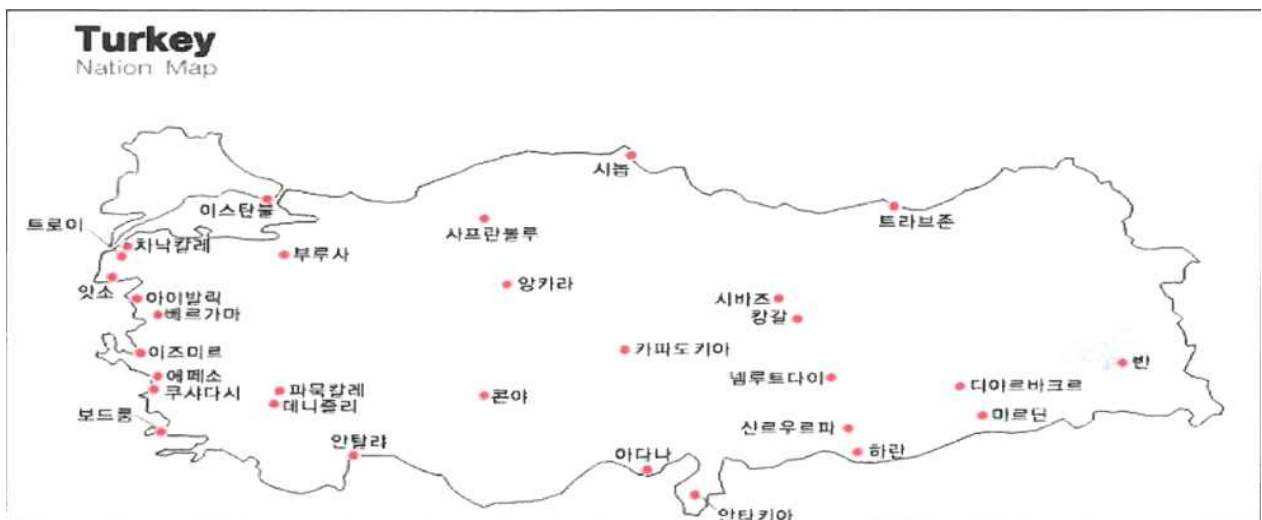
○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 위치해 있는 터키는 히타이트에서 로마, 비잔틴제국, 오스만 대제국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거쳐 간 곳이다. 초대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어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터키를 찾음과 동시에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화려했던 이슬람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는 이슬람국가로서 자리 잡았다.

축구를 좋아하고 한국동란 시 참전으로 맺은 인연으로 인하여 한국인을 코렐리(Koreli)라고 부르며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이다. 문화만이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신비의 나라이다.

○ 지리

- 총면적은 783,562km²로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터키는 에게해, 지중해, 마르마라해, 흑해를 접하고 있다. 보스포루스 해협, 마르마라해, 다르다넬스 해협을 경계로 아시아지역인 아나톨리아와 유럽지역인 트라케로 나누어진다.
- 터키는 위치에 따라 흑해, 말마라, 에게해, 지중해, 중앙 아나톨리아, 동쪽 아나톨리아, 남동 아나톨리아의 7개 지역으로 나뉜다.



○ 기후

- 지중해 연안지방의 전형적인 온난한 기후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터키의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변화무쌍한 기후대가 나타나곤 한다. 흑해 연안부의 따뜻한 기후를 즐길 수 있는가 하면 고산들로 가득한 산악지대에서는 연중 내내 새하얀 설경을 경험할 수 있다.

○ 사회, 문화

- 오늘날 터키 국민들은 그들의 조상이 중앙아시아 동북부에서 기원하여 서쪽으로 이동해 왔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16개 군주국이 흥망을 거듭하여 터키인들이 아나토리아 반도에 정착하게 된 것은 서기 10세기경이라고 한다. 중세에 아랍 지역을 횡단하여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터키인들의 대부분이 회교로 개종하였으며, 아랍문자를 도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 터키 국민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자연 숭배사상과 풍습을 오늘날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풍습과 근본적으로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한국어와 같은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터키어는 문장 구성순서, 모음조화, 어미 활용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과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는 점이다.

○ 종교

- 터키 국민의 98%는 이슬람교도(Muslim)이며, 그 외 아르메니아, 유대교, 카톨릭, 그리스정교 등이 있다. 터키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세속화된 나라로서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종교적 규율 적용에는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법률이나 사회 기구가 이슬람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 된다. 회교 국가이나 토,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등 서구화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풍속

- 터키는 종교 공휴일로서 셰케르 바이람(Seker Bayram : Sweet Festival)과 쿠르반 바이람(Kurban Bayram : Sacrifice Festival)이 있으며, 매년 날짜가 다르다. 바이람 전 한달동안은 라마단(Ramadan)으로 일출부터 일몰 시간 까지 금식하는데, 가장 큰 종교 축제인 바이람 기간 중에는 새 옷을 입고 친척 방문 등을 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카드를 보낸다. 터키인들은 친족과 가족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가정의 권위를 존중한다.

○ 국민성

- 터키 국민은 전통적으로 체면과 무예를 존중하며 매우 정열적이고 다혈질이나 서두르지 않으며, 신앙의 전사(戰士)라고 불리는 가지(Gazi)의 정신을 윤리의 주요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터키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동서양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

○ 주요 특산물 : 올리브

- 올리브는 지중해 일대에서 나는 물푸레나무과의 과수로 열매를 생으로 먹거나 절여 먹거나 압착해서 기름으로 만들기도 한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를 가리킨다. 지중해 사람들에게는 식재료 중 필수요소로 올리브를 꼽을 수 있다. 터키의 올리브가 특히 유명한데 소금에 짭짤하게 절인 것에 레몬즙을 뿌리고 여기에 오레가노를 곁들인 게 가장 기본적인 반찬으로 터키 요리에서 이것이 빠진 식사는 생각하기 힘들다.

2. 교육 제도

가. 터키의 교육 여건

- 터키의 교육 여건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터키인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와 지방 간 교육 시설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23년 터키 공화국이 건국된 당시에는 10명 중 1명만이 아랍어로 표기된 책을 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의 약 90% 이상이 라틴문자로 표기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터키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무료이며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을 치른 후 합격한 사람만이 진학할 수 있다. 터키에는 예술고등학교, 스포츠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등 다양한 성격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중학교 졸업 후 약 80% 정도의 학생이 대학 입학의 목표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약 50% 수준이다. 그리고 직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전공 계열의 2년제 전문대학에 무시험으로 진학하고 있다고 한다. 터키에는 169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오래된 대학은 1453년에 설립된 이스탄불(Istanbul) 대학이다.

나. 터키의 각급 학교별 교육제도

- 초등교육
 - 터키에서는 1997년부터 만 6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5년제 의무교육을 폐지하고 8년제로 연장하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급학년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 중등교육

-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희망에 따라 진학이 허용되며, 4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 국립고등학교와 직업 및 기술 국립고등학교로 구분되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전문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1~2단계의 대학입학교사를 통과해야 한다.

○ 고등교육

- 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으로서, 소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학비 전액이 무료이다. 4년제 대학교는 철저하게 학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졸업정원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 주관의 대학입학 시험을 치른 후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신입생들은 다시 별도의 영어시험을 치러야 하며, 소정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신입생에 한해 1년간 영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1981년 11월 6일 제 2547호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위원회(YÖK, Yükseköğretim Kurulu)를 설치하여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고등교육 위원회는 대학의 발전 및 평가, 예산 투자, 사업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3. 지방행정제도

가. 지방행정 체계

- 터키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81개 주(Province)와 695개 군(District), 35,855개 면(Sub-District)으로 나누었으며,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터키의 지방

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각 주에는 주지사를 장으로 하는 민선 주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으며, 인구 2천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되는 시(Municipality)는 전국적으로 1,984개가 있고, 각 시에는 민선 시장과 시의회가 있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34,974개의 리(Village)가 있으며, 이장(Headman)과 里議會(Concil of Elders) 의원은 민선으로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 가운데에서 선출함. 시에는 동이 있으며, 동장 또한 민선이다.

나. 지방의회의 구성

- 터키의 지방의회는 주의회와 시의회, 빌리지 의회가 있다. 주의회와 시의회의원은 투표권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빌리지 의회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다.
- 빌리지(Village)
 - 빌리지 의회(Council of Elders)는 직접민주주의 예로서 모든 지역유권자로 구성된다. 빌리지 의회는 특정한 행정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면 법규정에 의해서 선택적이라고 규정된 특정한 세금에 관해서 만약 빌리지 의회가 의무적이라고 결정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 빌리지 집행위원회는 선출직 위원과 비선출직(당연직)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 수는 8명에서 12명 사이로 빌리지의 주민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비선출직 위원은 빌리지의 학교 교장과 신앙심이 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빌리지 대표의 지출을 감독하고 예산을

결정하며, 빌리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한다. 또한 부과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 등을 수행한다.

- 빌리지의 장은 “Muhtar”라 칭하며 공무원 중 빌리지 의회에서 선출한다. 빌리지의 장은 정부사업과 지역사업에 관여한다.

○ 시(Municipality)

- 시의회 의원은 5년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의 수는 각 시의 인구수에 따라서 9명에서 55명으로 이루어진다. 시 집행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 의원들과 시청 공무원 중에서 구성된다. 시의원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시청 공무원 수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시 의회의 의원이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세 번 연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면직대상이 된다.
- 시장은 5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시장은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입후보하나 일단 시장으로 당선되면 소속 정당의 행정적인 직위는 사임해야 한다. 시장과 시 집행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최종 발언권이 있는 시 의회가 우선권을 갖는다. 시장이나 시 집행위원회가 의회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주지사에게 해결방안을 요청한다. 그럴 때, 최종 결정은 주지사가 담당하는 행정의회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무회의는 결정하기 전에 주지사를 통해 분과위원회의 견해를 듣도록 하고 있다.

○ 주(Special provincial administrations)

- 주의 의결기관은 주 의회이다. 주 의회 의원은 직접 선거에 의해 5년마다 선출한다. 주지사는 주 정부의 정치적 책임자이며, 정부대표이다. 주지사는 각료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에서 직접 임명한다. 주지사는 병무와 사법 행정을 제외한 중앙정부 관련업무 외에 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을 포함하여 주 정부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지사는 시의회의 지역예산 수정과 승인 등을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지사의 감독은 지역의회 결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정된다. 주지사는 주 의회에 연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주 의회가 2/3의 투표로 불만을 표시하면 주지사는 내무부 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4. 주요 방문기관

가. isabet okullari aksaray

- 주소 : Zafer Mahallesi, No:, Nevşehir Cd. No:134, 68165 Aksaray Merkez/Aksaray, 터키
- 학교의 특징
 - 터키 AKSARAY에 위치한 isabet okullari 학교는 약 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 학교로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 중소 도시 규모의 학교로 미술실, 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 시설을 잘 갖춰져 있으며, 학교 방호 및 경비는 잘 이루어 지고 있음.
 -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학습 교구 및 도서실에 장서도 많은 편이다.



나. Ozel Kardelen Koleji

○ 주소 : Aşağı Mahallesi, Ürgüp Yolu Üzeri 6. Km., 50240
Uçhisar Belediyesi/Nevşehir Merkez/Nevşehir, 터키

○ 학교의 특징

- Kardelen Koleji 학교는 약 7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 초·중·고등학교 통합 학교로 운영하고 있음.
- 학교의 교육 목적으로는 현대적인 접근 방법과 기술 혁신, 학술 연구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문제에 민감하고 영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자기, 사회, 자연 사랑을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는 학생 교육을 지향함.
- 강당, 체육관, 도서관 등을 구비하고 있어 학생들의 잠재적 재능을 발굴하고 닦을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여건
- 터키인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매우 높은 편이며, 터키 학생들의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음.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학생들이 많으며, 나중에 한국에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음.
- 학급 당 학생 숫자가 적어 교사의 개별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고 사제 간의 관계가 애정과 우호를 바탕으로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어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높음



다. 안탈리아(Antalya) 시청·시의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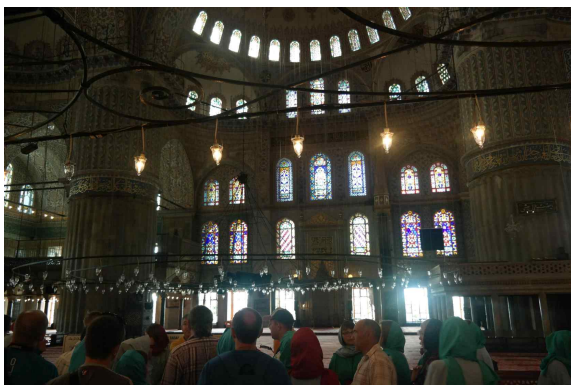
- 위치 : 터키 안탈리아 주, 지중해 연안
- 인구 : 1,073,794명 (2015 추계)
- 면적 : 1,417km²
- 안탈리아는 야자나무 가로수와 아름다운 항구가 있고, 인기 리조트들이 들어서 있는 지중해 최대의 관광 도시이다. 요트들이 늘어서 있는 마리나 항구의 모습이 특히 아름답고, 항구를 바라보는 구시가지인 칼레이치에는 좁은 골목에 전통 목조 가옥들이 밀집해 있어,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시이다.
- 안탈리아 시청 및 시의회 방문을 통해 도심과 항구의 연계성 및 관광 활성화 차원 검토 방안을 모색하고 터키 지방자치제도 운영 현황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청취 및 의견 교류를 하였음.



4. 주요 견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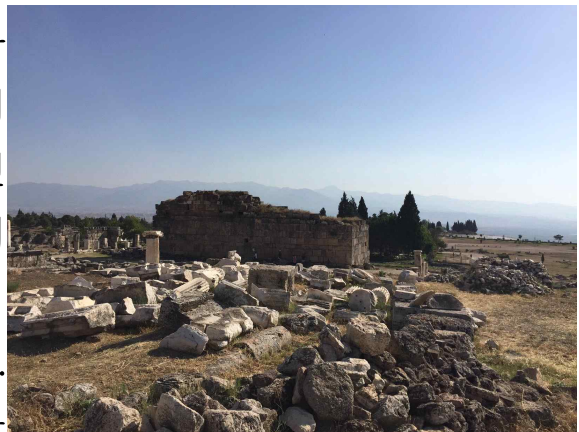
- 이즈닉 타일의 진수, 블루모스크(술탄아흐멧 모스크 SULTAN AHMET MOSQUE)
블루모스크는 오스만 제국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건축물로, 외부의 웅장함과 내부의 화려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직경이 27.5m, 높이가 43m에 다다른 술탄아흐멧 모스크는 규모 면에서 터키 최대의 것으로, 맞은편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상징하기 위해 그 양식을 모방, 발전시켜 건축한 독특한 형상의 회교사원이다. 이곳이 '블루 모스크'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유는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다. 2층 갤러리 부분에 파란색, 초록색의 이즈닉 타일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돔의 200개가 넘는 조그만 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어 이를 통해 들어오는 아름다운 햇살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하드리아누스 신전

크레테스 도로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 건물은 138년에 지어져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다. 건물의 현관 입구에 4개의 기둥이 남아 있는데 중앙의 2개 기둥은 아치를 이루고 있다. 현관을 들어서 안쪽 전면의 박공



머리에는 메두사를 닮은 여성의 모습이 나뭇잎과 함께 부조되어 있고, 그 아래 왼쪽부터 아테네 여신, 셀레나신, 미상의 한 남자, 아폴로신, 미상의 한 여자, 에페소스의 창시자 안드로클로스, 헤랄테스,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아버지, 데오도시우스 황제, 아르테미그 여신, 데오도시우스의 아내와 아들이 차례로 부조되어 있다.

○ 셀수스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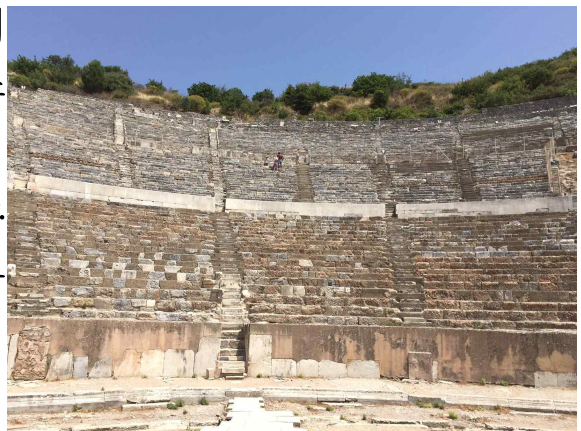
셀수스 도서관은 에페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한다. 이 건물은 AD 135년 율리우스 아퀼라가 소아시아 집정관이었던 그의 아버지 셀수스를 기리기 위해 지었다. 대리석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2층 도서관 건물은 조각 장식이 매력적이다. 하부층은



코린트와 이오니아식이 결합되어 있고, 상층부는 코린트식의 대리석 기둥이 바치고 있다. 로마제국 시절에는 한때 1만 2천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셀수스 도서관은 에페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한다. 이 건물은 AD 135년 율리우스 아퀼라가 소아시아 집정관이었던 그의 아버지 셀수스를 기리기 위해 지었다. 대리석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2층 도서관 건물은 조각 장식이 매력적이다. 하부층은 코린트와 이오니아식이 결합되어 있고, 상층부는 코린트식의 대리석 기둥이 바치고 있다. 로마제국 시절에는 한때 1만 2천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 야외 대극장

피온산 기슭의 비탈을 이용해 건설된 이 극장은 리시마쿠스 시대에 지어졌으며 오늘날의 모습은 트라얀 황제의 모습이다. 따라서 로마-그리스 타입으로 무척 아름다운 극장의 표본이 되겠다. 고대 극장이 모두 그러하듯이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약 18m 높이의 무대 정면 건물은 3층으로 되어있고 각종 부조와 조각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극장이다. 약 40m 지름의 중앙 무대는 정교한 음향적 구조로 되어 있다. 관중석은 외곽까지 150m의 크기이며 약 25천명 까지수용 가능한 극장으로 마이크 없이도 관중석 끝까지 육성이 잘 들렸으며, 이곳은 기독교 역사에도 아주 의미 깊은 곳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에페소스의 은 세공장이들로 부터 수난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 파묵칼레(Pamukkale)

이즈미르에서 남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곳에 데니즐리라는 큰 도시가 있다. 다시 데니즐리에서 17Km 정도 가면 지면이 완전히 눈으로 덮인 듯한 언덕 하나가 나타난다. 사실 이것은 눈이 덮인 것이 아니라 칼슘이 풍부한 온천수에 의해 이루어진 자연의 대 작품이다. 이 곳이 바로 터키인들이 목화성이라는 뜻의 '파묵칼레'라고 이름 붙인 고대 히에라폴리스이다. 산 위에서 수 천년을 두고 흘러내린 칼슘성분의 온천수는 산비탈을 온통 순백의 바위로 뒤덮게 했으며 층층이 테라스 모양의 천연욕을 만들어 놓아 대 장관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온천수는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수 천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곳곳에 자생하고 양귀비 빛깔이 너무 고운 곳이다.



○ 히에라폴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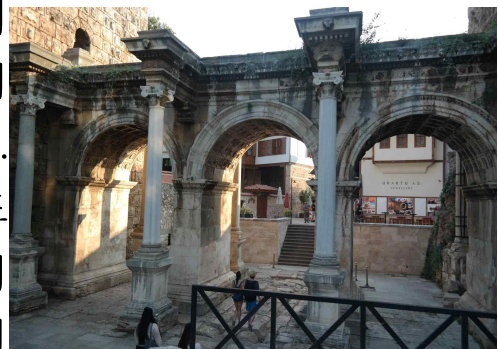
파묵칼레에 있는 페허의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기원전 190년경에
페르가몬 왕국의 에우메네스가
세운 것으로 이 도시의 이름은
왕가의 시조인 텔레포스의 부인
이었던 '히어로'또는 '히에라'
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천 외에 구리세공과 양모산업, 카펫산업, 염색공업, 대리석산지로
유명했던 이곳은 비잔틴은 시대에 번영을 누려 유스티니아노스
황제 치세인 6세기에는 대교구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나, 그 뒤
아랍인과 터키인의 공격을 받으면서 쇠퇴기에 접어든다.

○ 하드리아누스 문(hadrianus Kapisi)»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문으로 130년에
로마의 하드리누스 황제의 통치(재위
117~138년)를 기념하여 만든 문이다.
이문이 현재의 지면보다 3m 정도
낮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칼레이치
(구 시가)의 땅 아래에 로마의 도시
유적이 묻혀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 Covered Baza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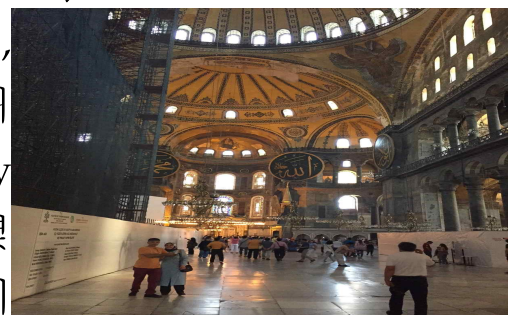
터키어로 '덮여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의 카파르 차르쉬(Kapar Carsi)시장은 아치형 돔 지붕으로 덮인 대형 실내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그랜드 바자르로 알려져 있다. 1455~1461년 술탄
메메드 2세(Mehmed II)의 명에 의해서 건축되었으며 16세기

술탄 술레이만 1세(Suleiman I) 통치시기의
 대대적인 확장을 비롯하여 여러번의
 증·개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
 으로, 현재 60여 개의 미로 같은 통로
 에 5,000여 개의 상점이 있으며, 2개의
 주요 통로 끝에 있는 입구 4개를 포함



하여 모두 20여 개의 입구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누루오스마니에 게이트와 베야즈트 게이트
 이다. 누루오스마니에 게이트의 박공머리에는 의장용 무기와
 책, 깃발이 새겨져 있는 “카팔르차르식(그랜드 바자르의 터키
 식 이름)1461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다. 그랜드 바지르는
 지금까지 12번의 강진과 9번의 대화재로 소실되었고 재난 때
 마다 복구되었는데 1894년 지진과 1954년 대화재이후 크게 복
 구되었다. 시장에는 금·은 세공품을 포함한 각종 보석류, 피
 혁류, 카펫, 향신료, 형형색색의 도자기와 기념품을 포함한 각
 종 공예품과 특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비잔틴 시대부터 동
 서양의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오늘날에는 하루
 최소 25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스탄
 부ルの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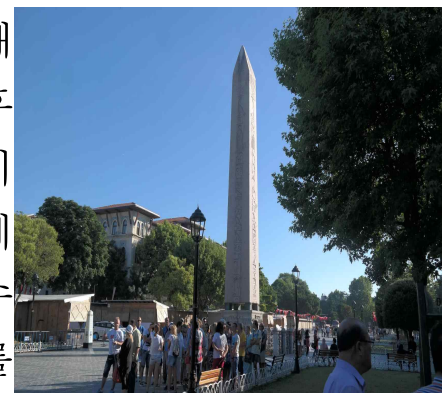
○ **아야소피아 성당(Ayasofya Muzesi) = 아야소피아 박물관**
 원래 이름은 아기아 소피아,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이다. 소위
 "지혜의 성당(Church of the Holy
 Wisdom)"이라 하는 이 건물은, 몇몇
 역사학자들이 세계7대 불가사이에



하나를 덧붙여 8번째 불가사의로 간주하는데, 당시의 건축 기술로 볼 때 그처럼 거대한 건물이 그토록 오랜기간 동안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불가사이의 중 하나로 친다고 해도 별 손색이 없을 듯 하다. 사실 이 건물이 지어진 이후 천년이 넘도록 그에 필적할 만한 다른 건물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동서양 문명의 공존이라는 이스탄불의 특성을 상징하는 건물은 바로 성소피아 성당이다. 동로마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5년 10개월 동안 장인 100명과 노동자 1만 여 명을 동원해 537년에 드디어 성당을 완공했다. 교회 내의 기둥은 로마 제국 곳곳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멀리 이집트에서 온 것도 있었다. 웅장한 돔 양식으로 사방에 첨탑이 서 있으며 그리스정교의 본산으로 황제 대관식 등 중요한 행사 장소로 쓰였다. 오스만투르크 제국 시절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모했으나 이슬람교도들은 성당의 원래 구조를 바꾸거나 파손하지 않았고 회칠로 벽화를 가리거나 일부 건축 요소만을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 복원을 통해 비잔틴 시대의 벽화와 모자이크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성소피아 성당은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밀라노 두오모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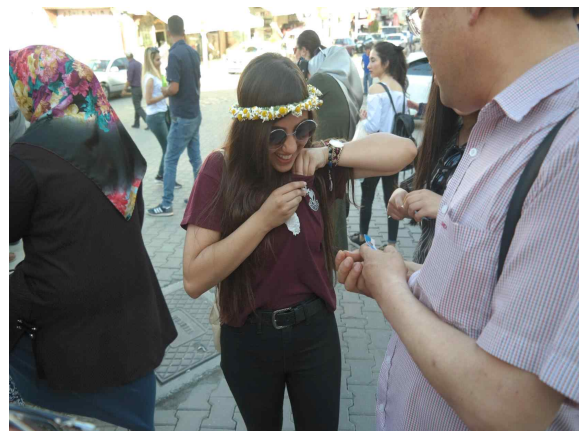
○ 히포드롬(Hippodrome Square)

로마황제 셉티미우스 세베리우스에 의해 A.D 203년 '비잔티온'에 만들었다. 그 후 콘스탄틴대제에 의해 확장되었다. 당시 경기장의 규모는 폭이 117m 길이 480m에 달했으며 10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한다. 이곳에서는 각종 경기, 황제를



위한 축제 등이 거행되었던 비잔틴 시민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두 차례의 대 학살이 이곳에서 발생 하는 등 슬픈 역사의 비극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 경기장의 중앙 분리대는 '스피나'라 불렸다. 당시 이 스피나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를 비롯한 많은 대리석 및 청동탑이 세워졌으나 지금은 기원전 15세기 이집트에서 만들었다는 테오도 시우스 오벨리스크, 479년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들여온 뱀 머리의 오벨리스크, 940년 콘스탄티누스 7세가 만든 콘스탄티누플 오벨리스크가 남아 있다. 여기에서 영화 「벤허」의 유명한 전차경기가 펼쳐지기도 했던 곳이다.

○ 기타 활동(2018 동계올림픽 홍보 활동)



IV. 연수종합의견

- 해외연수 기간동안 교육위원회는 터키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정치·문화·교육·사회·경제·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책 및 사례를 둘러보았다.
- 이번 연수에서 터키의 교육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접한 뒤 얻는 내용은 학습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만큼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사들의 교육적 마인드가 확립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교실에 충분한 기자재를 구비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성취욕을 더욱 북돋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책무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바로 그 힘이 더 나은 미래의 교육을 만들어가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그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뚜렷한 교육철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새삼 느꼈다.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찾아내려는 노력,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접근하고 지도하려는 지속적인 인내를 교사의 뚜렷한 교육 철학으로 세운 후에야 진정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2017년도 교육위원회 국외연수를 통하여 우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수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이 의정활동에 잘 반영되어 강원도와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